

전이과정에서 나타난 재원 및 신입 영아들의 적응

김 미 숙¹⁾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만 2세 영아들의 전이와 적응을 조사하고자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2007년, 2008년 2년 동안 각각 3-4월에 이루어진 전이와 적응에서 재원 영아와 신입 영아들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형성, 적응 현상을 관찰하여 해석하였다. 연구 장소는 동일한 어린이집의 2세 영아 학급을 2년 동안 관찰하였으며, 일주일에 2-3차례, 아침 9:30분부터 11:30분 혹은 12시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결과 해석은 참여관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사례들을 주제로 추출하여 해석하였다. 재원 영아들이 많은 해의 경우, 신입 영아들은 전이 기간 동안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쉽게 했으며, 이에 따라 적응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신입 영아들은 재원 영아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에 쉽게 몰입하였으며, 재원 영아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신입 영아들은 다양한 대안적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전이 기간에 일어나는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가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보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이 및 적응 관련 실재의 방법론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어린이집, 신입 영아, 재원 영아, 전이 및 적응, 놀이,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1)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kmisukch@yahoo.co.kr)

I. 서 론

현재 젊은 부부의 맞벌이 증가로 인해 영아 보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여성의 취업이 40 %에 달하며, 이들 여성의 24세 자녀들의 54%가 보육을 받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5)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에서는 영아 보육을 1세부터 2세까지로 하고 있으며 종일 보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아들은 아직 언어적 표현이 서투르고 신체, 사회, 정서, 인지, 언어의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양육자의 영향이 큰 시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착 발달은 더욱 더 그러하다.

애착 발달에 관한 이론은 전통적으로 Bowlby와 Ainthworth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글들이 발표되어 왔다. 이들 이론의 주요 개념은 초기 영아기에 어머니와의 애착은 사회성 발달의 주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약 2년 동안의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발달심리학, 아동학 관련 문헌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관련 연구들에서는 애착은 또래 관계(Jacobson & Wille, 1986), 놀이의 능력(Howes, 1997)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Howes & Tonyan, 2003) 일반화하는 것 같다.

최근에 아주 어린 영아들이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받는 경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영아들의 분리와 전이는 중

요한 보육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어머니와의 분리 경험에서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발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Ainthworth et al., 1978, 재인용, Bove, 2001).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교사와의 애착에 주는 영향의 정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의 애착과 무관하게 교사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면 공격성이 낮았으며, 영아들의 사회성 발달은 교사의 긍정적인 행동과 또래들과의 수용지각과 관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민감하고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또래들과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Howes et. al., 1994; NICH, 2001)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관점의 분리와 전이를 최근에는 다원적 사회관계로의 전이와 적응으로 재개념화하고 있다(Bove, 2001). 이러한 관점의 실제에서는 교사와의 애착 형성이나 부모와의 분리 과정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교사뿐만 아니라 특히, 또래와의 다원적 관계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다원적 관계에 기초한 적응에 관한 객관적 타당성은 영아들의 사회성 발달이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 보고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육 기관에서의 또래들과의 사회적 경험은 시간, 그리고 연속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동일 영아들과 몇 해를 같이 보낼 경우, 그렇지 않은 영아들에 비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단독 놀이를 덜 하였다는(Galluzzo, Matheson, Moore, & Howes, 1990; Holmberg, 1980) 사실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보육기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또래들과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놀이를 한다는(Volling & Feagans, 1995) 연구결과 보고에서도 또래들과의 다원적 관계 형성과 적응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영아들의 보육기관으로의 분리와 적응은 부모와의 이원적 애착에서 교사와의 이원적 애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다원적인 관계에 의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또래와의 애착 형성이 전이 기간의 적응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과 또래 관계 형성의 인과 관계를 밝혔으나 또래 관계 형성 과정이나 그 양상을 규명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2007년 2세 영아들의 전이 과정을 관찰하면서 신입 영아의 전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적응은 자원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08년 조사 데이터를 추가하여 영아들의 전이 및 적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 신입 영아와 자원 영아들과의 상호작용과 또래 관계 형성과 적응과정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이 기간은 어머니와의 분리 후에 보육기관으로 적응하는 기간을 포함한다(Bove, 2001).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에서의 영아들의 적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형성 과정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 관찰 대상이 되었던 영아들은 26명으로서, 27개월부터 35개월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2008년 관찰 대상이 되었던 영아들은 21명으로서 다양한 월령이었으나 두 해 모두 높은 연령의 영아들이 많았으며 높은 월령의 영아 수는 동일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자원 여부에 대한 실태의 경우, 2007년에는 거의 자원 영아가 없었던 반면 2008년에는 자원 영아들이 많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2007년에는 2008년에 비해 신입 영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디지털 산업 단지이나 어머니의 직업은 경찰공무원, 교사, 회계 감사 등 다양하였다. 어머니 이외에도 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9시 이후에는 할머니나 도

〈표 1〉 년도별 영아들의 특성

내용 \ 년도	구분	2007	2008
월령	27~30	11	7
	31-35	14	14
성별	남	16	13
	여	10	8
자원 및 신입	신입	24	13
	자원	2	8

우미 등 대리모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영아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연구 장소

본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이다. 본 연구 대상이 된 2세 영아반은 전체 3층짜리 구립 어린이집의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다(2008, 김미숙). 그 영아반은 1층 왼쪽 복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옆 교실에는 1세 영아 학급, 앞쪽 교실에는 3세 영아 학급이 위치하고 있다. 교실은 큰 대로변을 마주보고 있어 창문을 통하여 거리 광경을 관찰할 수 있다. 전이 기간 동안 영아들은 이 곳 창문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며 울거나 그곳의 사람과 차를 바라다보곤 하였다.

이곳에서 보육을 받는 영아들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분주하게 영아들을 보육 기관에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는 어머니들의 바쁜 걸음을 볼 수 있었다. 직접 도보로 영아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도 있지만 대개는 차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 혹은 가사도우미와 할머니 등 대리모들이 현관에 들어서면 교사들이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영아들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갔다. 대개 부모들은 영아들을 교사의 손에 넘긴 이후에 쏜살같이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으며 교사들은 우는 영아들을 안고 복도를 지나 교실로 재빨리 들어왔다. 영아들은 교실 문을 들어서면 문 유리창으로

복도 쪽을 내다보면서 울었다.

교사 3명과 영아 21명이(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대체로 7:1) 함께 하루를 보내는 교실은 공간적 밀도가 높았다. 따라서 교사와 영아들, 그리고 영아들 간의 신체적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 근무했던 교사들 중 1명은 2008년 동일 유아들을 그대로 3세 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며, 1명은 이직을 하였고, 나머지 한명은 2세 반에서 다시 새로운 영아들을 보육을 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1주일에 2번 학급의 활동을 각각 주도하였으며 개별적 교육계획을 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동일한 교실에서 일어난 2세 영아의 전이와 적응과정을 관찰한 참여관찰 연구다. 두 해 동안 관찰되었던 장소는 동일한 2세 영아 반이었으나 2007년과 2008년 관찰된 영아들은 각각 달랐다. 본 연구자는 2007년 3-4월, 2008년 3-4월 초까지 전이기간 동안 일어났던 신입원아와 재원 원아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였다. 아주 어린 영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3-5월이 전이와 적응을 하는데 가장 민감한 시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여 관찰은 문화기술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사회질서와 계층 등의 사회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Gubrium & Holstein, 2000).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학적 입장에서 참여 연구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이나 학습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참여 관찰

을 통한 조사를 하기도 한다(Corsaro, 1997; Rogoff, 1998). 특히, 영·유아들의 발달에 대한 참여적 관찰 연구는 인류학적 접근으로서(Rogoff, 2003) 설명되고 있다. 참여연구에서 ‘참여’와 ‘관찰’의 정도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다(Rock, 1999). 본 연구자의 참여 관찰자의 역할은 관찰에 더 주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학급의 활동이나 학급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연구 장소를 드나들면서 교사, 시설장, 영아들과 친숙하게 지냈으며, 교실에서 영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녹화를 잠시 중단하고 도움을 주었다.

관찰 횟수는 매 주 2-3회 이며,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혹은 12시까지 이었다. 2007년 비디오의 녹화에서는 신입 영아들의 분리 후에 일어나는 학급에서의 적응 과정을 녹화하였다. 특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4명의 신입 영아들을 중심으로 다른 신입 원아들 및 자원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녹화하였다. 2008년의 녹화에서는 2주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신입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분리를 수월하게 하였고 또한 또래들과 상호작용도 수월하게 하였다. 따라서, 2007년 관찰에서는 신입 영아들이 분리 후에 자원 영아들과의 상호작용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진입하는 긴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였으며, 2008년 관찰에서는 신입 영아와 자원 영아들 간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녹화하였다. 녹화는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자유 선택 놀이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영아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3. 데이터 해석 방법

2007년과 2008년 3-4월의 전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신입 영아와 자원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1, 2차로 해석하였다. 1차 해석에서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재생(replay)하여 전사하였는데, 대화는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대화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 제스처, 놀이는 해석을 하였다. 이는 연구 현장에서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생하여 전사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해석적 행위라는 주장(Henley, 1999)에 근거한 것이다.

데이터 분석에서 이러한 관점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본 연구 대상인 영아기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은 비언어적 표현과 놀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차 해석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기간의 1차 데이터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참여 관찰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빈도는 유사한 사건들을 포함한다. 이처럼 관찰 기간 동안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그에 관한 유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은 참여 연구에서 데이터 해석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Becker, 1999).

IV. 결과 및 해석

1. 차단된 심리적 공간에서의 분리하기와 또래와 조우하기

투명하고 개방적인 바깥 공간을 넘어 불투명한 심리적 공간에 직면하기

가정에서 보육기관으로 처음 전이를 경험하는 영아들은 보육 기관의 모든 것, 즉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아주 생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이 기간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리 부모와의 애착이 잘 되어 있던 영아라도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국내의 보육기관에서는 전이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이기간 동안 보육기관에서 처음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이들에게는 적응이 최대의 관심사이자 과제이다. 특히, 보육기관에서 물리적 환경은 아주 중요하다. 전이 기간 동안 이 물리적 공간은 심리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안정성, 개방성을 유지해야 만이 영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처음 낯선 곳에서 부모 혹은 대리모를 기다려야 하는 영아들이 보육 기관 건물 밖과 안의 공간적 연속성을 볼 수 있어야 바깥 공간에서 존재하는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를 유리문(성인의 가슴 높이부터 유리가 있는)으로 들여보낸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성이던 진성의 할머니는 몸을 숨기고 고개를 반 쯤 내민 상태에서 교실 안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함께 놀고 있던 또래들 옆에서 울고 있는 진성은 또래들의 놀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문 쪽을 바라다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러자, 또래 재훈이가 놀이를 잠시 중단한 채 얼굴을 찡그리며 큰소리로 “울지마”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진성은 더 서럽게 울었다. 진성은 집과 주 양육자인 할머니로부터 공간적, 심리적 분리에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환경 또래, 교사, 그리고 놀이 상황을 갑작스레 직면하여 당황해 하고 있었다(2007, 3월, 참여관찰).

영아 진성은 바깥 공간과 차단된 닫힌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부모와의 분리에 대해 더 두려움을 가지고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래의 부정적인 반응은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영아 학급에서는 재원 영아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이 기간 초기에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1-2주 동안은 많은 영아들이 울었는데, 특히 초기 2-3일 동안 교실 안은 마치 ‘울음바다’가 된 것 같았다.

영란이는 교실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울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 할머니는 떠다밀듯이 그 아이를 교실에 밀어 넣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버렸다. 교사는 할머니로부터 그녀를 받아 안고는 달래고 있었다. 영란이는 교실 입구에 섰다.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메고 온 어린이집 가방을 절대로 어깨에서 풀어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교사가 몇 번 설득을 해보았지만 말을 듣지 않자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영란이는 등에 가방을 맨 채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울었다. 진성과 영

란이처럼 신입원아들은 처음 2-3일은 교실에서 격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울었다(2007, 3월, 참여관찰).

부모, 조부모, 대리모들이 분리 과정에서 영아들을 떠다밀듯이 안으로 밀어 넣어 일종의 강제적 분리를 지향하는 것은 영아뿐만 아니라 이들 성인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전이 초기 기간은 영아와 부모 및 교사에게 암울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아들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불안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것들에게 다가서기와 자아(self)에서 머무르기

신입 영아들은 분리 상황에서 울음을 멈추고 제일 먼저 바라다 본 것은 자원 영아들이 가지고 놀고 있던 놀잇감이었다. 신입 영아들은 분리 상황에서 관심을 보이게 되는 중요한 대상인 놀잇감은 그들의 불안을 잠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세 영아기는 협력적 가상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놀잇감은 상징 발달의 과제를 지닌 영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다. 전이 초기에 신입 영아들은 교실에서 2-3일 정도 지내면서 자원 영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놀이의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거나 만지기 시작하였다. 자원 영아들은 분리 때문에 신입 영아들이 불안해 할 때 소극적인 감정이입을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놀고 있는 놀잇감을 울고 있던 신입 영아가 가지고 가면 그냥 내버려두거나 자신의 장난감을 건네주었다. 영아들은 이러한 사회적 세계에 대해 자신을 조금씩 열어가

고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친숙한 무엇인가를 찾았다.

신입 영아 영란이는 크게 울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에 교실 문을 바라다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크게 울었다. 그녀는 학급에 들어와서는 계속 울면서 한 곳에 앉아 있거나 서있었다. 그녀는 또래들의 놀이나 교실 환경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했다. 그녀는 가방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집에 돌아갈려는 듯 울면서 절대로 겹옷과 가방을 벗지 않았다. 며칠 후부터는 학급에 들어 올 때 여전히 울면서 외투를 벗지 않고 가방을 뒤에 멘 채 교실의 영아들의 테이블 위에 붙어 있는 자신의 작은 사진을 찾았다. 교사가 그녀를 자신의 사진이 붙은 자리에 데려다주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교실의 테이블 위에 붙어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찾는 회수도 그리하였다. 회수도 처음 3-4일 동안 울면서 교실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사진을 찾았다. 자신의 사진이 있는 자리에 데려다주면 자신의 사진을 만지작거리면서 안정을 찾곤 하였다(2007, 3월참여 관찰)

2. 다른 또래들의 견고한 사회적 그룹 경계 허물기와 또 다른 자신의 사회적 경계 형성하기

또래들의 놀이집단의 경계 허물기와 새로운 놀이집단 형성을 시도하기

1세부터 함께 보육을 받았던 자원 영아들은 혼자 놀기도 하였지만 또래들과 연합

(associative) 혹은 협력(collaborative) 놀이를 함께 하였다. 재원 영아들은 함께 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여져 함께 노는 놀이 과정에서 병행, 연합, 협력 놀이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러한 놀이는 하루 종일 반복 되었다. 2세 영아들의 놀이에서 단독 및 병행 놀이와 연합 및 협력 놀이가 함께 반복되는 것은 미국의 영아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김미숙, 2006).

처음 1주 동안에는 신입 영아들은 이러한 재원 영아들의 놀이에 합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입 영아들 간에도 거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신입 영아들과 재원 영아들 사이에는 일종의 사회적 벽이 있었다. 비록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서로 놀지 않았으나 신입 영아들은 재원 영아들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항상 조용히 놀고 있던 신입 영아 시연이는 함께 놀고 있던 재원 영아에게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함께 놀고 있던 또래들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보다가 다시 자신들의 놀이를 계속하였다. 시연이는 그 옆에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그 놀이를 지켜보다가 그들이 자신을 놀이에 전혀 끼워주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자 그 옆에 앉아서 다른 활동을 혼자서 하다가 다시 또래들의 옆으로 가서는 그들의 놀이를 바라다보고 있었다.(2007, 3월, 참여관찰)

공격적인 행동으로 새로운 놀이집단의 경계를 만들어가기

또래들의 거부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하

는 영아들이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영아들도 있었다. 신입 영아들은 또래들의 거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래들의 놀이 전략을 파악한 후에 그들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영아가 있는 반면 또래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놀이 파트너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영아도 있었다.

재원 영아와 신입 영아 세 명이 컬러블록을 위로 쌓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건물을 쌓고 있었으며 작은 블록들을 큰 블록 위에 쌓고 있었다. 신입 영아 희수는 이들 한 가운데로 들어와서 앉았으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블록을 수평으로 나열하였다. 또래들이 그의 행동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는 작은 블록을 들어 맨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영아가 그 위에 더 작은 블록을 올려놓고 서로 마주 보면서 웃었다(2007, 3, 참여관찰).

재원 영아들의 놀이 전략에 자신의 놀이 전략을 조절하는 신입 영아들은 그들과의 놀이에 참여 할 수 있었으며, 놀이 과정에서 정서적, 사회적 교류를 하기 시작하였다. 희수는 초기 전이 기간 약 2주부터 또래들과의 놀이를 점차로 많이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쉽게 이루어지면 어머니와의 분리를 쉽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영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또래들과의 놀이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공격성은 사회성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적응 기간에서의 초기 공격적 행

동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영수는 공격성이 가장 심한 영아로써 또래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다. 특히, 자원 영아들이 협력 놀이를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놀잇감이나 교구를 빼앗기 위해 때렸다. 처음에 그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자원 영아들은 울거나 피했다. 이는 신입 영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의 공격적 행동과 함께 자원 및 신입 영아 또래와의 놀이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또래들은 영수가 자신들의 몸을 가볍게 친다든지 무엇인가 몸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려고 하면 그의 의도를 파악한 듯 함께 놀이를 시작하였다(2007, 4, 참여관찰).

초기 적응기간 동안 영수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놀이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영수는 일단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시작된 이후 시도한 후에는 또래들과의 관계를 건고하게 하기 위하여 놀이집단의 경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영수와 자원 영아인 은지는 함께 동화책을 보고 있었다. 은지는 동화책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영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때 다른 또래들이 그들 옆에 오려고 하자 영수는 손으로 밀어 자

신들의 활동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또래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영수와 은지는 웃으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동화책을 함께 읽었다(2007, 4, 참여관찰).

초기의 영수의 공격성은 또래들과의 놀이나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놀이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또래들이 영수의 공격적 행동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아주 어린 영아기의 어린이들도 또래들의 사회적 욕구를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었다.

새로운 집단적 의식을 창출하고 형성하기

일반적으로 전이 과정에서 개별적 전이를 많이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적 전이는 영아의 개인적 성향, 상황,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인 보육 기관의 교실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전이 전략보다는 집단적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대집단 활동이 특히 그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이기간동안 관찰된 대집단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동화책 읽어주기, 배변활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교실의 집단적인 규칙을 노래나 시연을 통해 영아들이 따라하도록 하였다. 전이 기간 동안 집단적 활동이나 규칙에 적응하는 영아들의 행동은 그들의 성향이나 또래와의 친밀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재

원 영아들이 많았던 학급의 경우, 신입 영아들의 집단 활동에 대한 적응력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집단 활동은 대개 교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입 영아들의 경우, 초기 적응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1세 때부터 동일한 학급에서 지내온 재원 영아들이 많은 학급에서는 신입 영아들의 집단 활동은 크게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 비록 교사가 영아들에게 자신의 지시나 행동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재원 영아들은 교사의 지침이나 지시를 자신들 나름대로 변형하여 일종의 ‘자발적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 의식’에서 신입 영아들의 집단 활동에 대한 적응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초기 대집단 활동에서는 교사들이 노래를 통하여 영아들이 서로 인사를 하게 하거나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게 하였다. 교사가 노래를 부르면 영아들은 따라서 부르고 영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야 안녕” 혹은 “~야 사랑해”를 반복하게 하였다.

교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머리를 굽힌다)!

영아들: (따라하면서 박수를 친다).

교사: 아니 박 수 안치고, 같이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몸을 굽힌다)!

영아들: 안녕하세요(영아들도 따라한다).

교사: 이슬반 친구들,

영아: 이슬반 친구들

교사: 자, 친구들 안녕(손을 흔든다) 해야지!

영아들: 안녕

교사: 눈 마주보고 인사해야지. (손을 흔들며), 안녕, 안녕(앞에 있는 영아들의 얼굴에 교사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중략.....

상만이가 고개를 흔든다. 앞에 있는 성수도 고개를 흔든다. 서지도 흔든다. 그러자, 영수도 고개를 흔든다. 곧이어, 신신이, 은혜도 고개를 흔든다. 마치 크고 까만 원들의 물결이 한쪽에서 움직이는 듯 했다 (2007, 3, 참여관찰).

교사가 영아들에게 인사로 손을 흔들었지만 영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교사의 손짓을 변형하였다. 재원 영아들과 신입 영아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적 의식을 만들어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적 활동 과정에서 의식적 행동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신입 영아들과 재원 영아들의 심리적 경계는 사라지고 서로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적 활동과 사회적 상황에서 신입 영아들은 재원 영아들과 함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율적 집단 활동에서 그룹에 대한 ‘동질감’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던 사회적 상황, 즉 ‘자발적 공동체 의식’에서 전이 초기에 부적응 행동을 나타냈던 영아조차 그 상황과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몰입하게 되었다.

민호는 전이기간 1개월 동안 엄마와의 분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영아이다. 분리 과

정에서 심하게 울었으며, 교실에 들어와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도 거의 하지 않았다. 2개월 쯤 접어들면서 민호는 울음을 간헐적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또래들과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였다.

교사는 영아들에게 종이컵을 부킹 가위로 잘라 꽃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각 자리에 가서 앉도록 하였다. 교사가 컵을 나눠주고 있는 사이에 한 테이블의 영아들은(7명) 테이블 위를 손으로 두들기기 시작하였다. 그 때 다른 영아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자 교사는 자리를 찾아주고 있었다.

이 때 왼쪽 테이블에 앉은 영아들(7명) 중 몇 명이 컵을 테이블 위에서 두들기기 시작하였다. 그 때 다른 테이블의 영아들도 1-2명씩 컵을 두들기기 시작하였다. 그 때 처음에 컵을 두들기기 시작했던 테이블의 영아들이 모두 함께 컵을 책상 위에서 크게 두들기자 다른 테이블의 영아들은 모두 그곳을 보고는 같이 컵을 두들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교실에는 컵 두드리는 소리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호는 함께 컵을 두들겼다. 이를 본 교사는 마음을 바꾼 듯 컵을 테이블에 굴리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서 입으로 불기도 하였다. 영아들은 교사의 행동을 따라하였다(2008, 4, 참여관찰).

재원 영아들의 집단적인 활동의 생성은 영

아들에게 자신들의 ‘공동체 문화’를 낳게 하였고, 이는 교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전이 기간의 신입 영아들이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자발적인 집단 활동에서 전이 기간에 있는 영아들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다양한 놀이의 생성으로 다양한 놀이 파트너 망 구축해가기

극놀이와 숨바꼭질에서의 짝짓기

극놀이. 재원 영아들이 많은 학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원 영아들 간의 놀이가 많이 형성되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재원 영아들과 신입 영아들 간의 놀이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적응기간 2개월 동안 재원 영아들과 신입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극놀이 영역이었다. 적응기간 1개월이 지나면서 재원 영아뿐만 아니라 신입 영아들도 극놀이 활동에서 역할을 정하는 등 또래와의 놀이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재원 영아와 신입 영아의 놀이는 주로 짝(pair)으로 진행되었는데,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영아들이 연루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놀이의 주제와 틀을 유지한 것은 짝으로 구성된 두 영아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입 영아 희란이 재원 영아 지혜와 함께 놀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재원 영아 우식은 그들의 옆에 앉아 그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기다리는 듯 그들을 바라다보면서 조그만 소쿠리 안에 있는 뭔가를

만지작거리면서 있었다. 이 때, 재원 영아 상만이가 자신의 작은 조리개(놀잇감이 들어있는)를 거꾸로 들어 지혜의 소쿠리에 쏟아 넣었다.

지혜: 아아~ 야 야 야

상만: 야 야 야

상만이는 이내 곧 동작을 멈추고 지혜에게서 떨어졌다. 그는 혼자서 그 자리를 배회하다가 곧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지혜는 계속해서 신입 영아 희란의 입에 뭔가를 넣어주고, 희란은 계속 그것을 받아 먹는 체 하였다.

.....중략.....

희란: (옆에 서있는 재원 영아 은혜를 보고) ‘아퍼? 아퍼?’

지혜: (우식이와 지혜의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에 앉은 은혜에게 청진기를 손에 들고는)

아픈가요?

(희란을 보면서) 아픈가요?, 안아프죠?

희란: (말없이 지혜를 본다).

지혜: 안아프죠 (큰소리를 내며)?

.....중략.....

지혜: (빨간색 플라스틱 식판을 희란에게 주었다.)

희란: (희란이가 그것을 앞에 있는 남아에게 주었다)

지혜: (지혜는 그것을 다시 뺏으며) 아니, 아니 아냐(그것을 희란에게 주나 희란은 받지 않고 옆의 자리에 누워 버린다. 그러자, 지혜는 그것을 호민에게 주고는 그 대신 분홍색 식판을 희란에게 들이민다(2007, 3, 참

여관찰).

재원 영아 지혜와 신입 영아 희란의 역할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또래들은 그들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 주변에 서 있었다. 지혜와 희란이 그들에게 놀이를 시도하면, 그들은 그 놀이에 잠시 참여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들 또래들과는 달리 지혜와 희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간헐적으로 끊어졌지만 놀이는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는 두 영아들의 방어적 놀이 전략에서도 잘 드러났다. 두 영아는 또래들이 자신들의 놀이에 들어와서 소극적 참여를 하는 것은 수용하였으나 자신들의 놀이에 소용되고 있는 놀잇감을 가져가는 등 자신들의 놀이의 틀이나 흐름을 깰 수 있는 행동은 용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두 영아는 한 동안 또래들의 놀이 개입에도 분리되지 않았으며, 또한 서로의 놀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침입자(invader)’를 용인하지 않는 놀이 파트너로서의 짝을 이루었다.

희란: “만지지마, 만지지마” (호민에게 다가가서 심장 압박계를 뺏어 지혜에게 준다)

지혜: (지혜는 그것을 받아 귀에 꽂고 바닥에 앉은 희란의 몸을 한동안 청진기로 진찰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중략.....

한동안 지혜와 희란이 놀이를 하다가 지혜가 벽에 걸린 모자를 눌러쓰고 놀이를 잠시 하다가 교실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희란과 남아도 그 뒤를 따른다. 이들은

한동안 함께 돌아다니다가 지혜가 미술 스케치북을 들고 미술 코너로 가자 희란도 그 뒤를 따라 곧 미술 영역에서 스케치 북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2008, 3, 참여 관찰).

지혜와 희란은 함께 짝을 이루어 각각의 놀이의 파트너가 되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놀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은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에서의 파트너십은 수평적인 놀이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놀이에 대한 공동의 의도(joint of intention)와 비계설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놀이에서는 지혜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했다. 지혜는 놀이의 행동과 역할을 제안하였고 희란은 지혜의 제안을 수용하고 따르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자원 영아들과의 놀이에서도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혜가 신입 영아 희란에게도 예외 없이 그 역할을 유지 하고자 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신입 영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놀이가 진행되는 내내 지혜는 자신이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 또래보다는 희란에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것에서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입 영아 희란의 입장에서조차 사회적 관계에 개방적인 지혜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하는 최선이 방법일 것이다.

숨바꼭질. 영아기의 숨바꼭질은 마음의 이론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의 학급에서는 개방 공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숨바꼭질 놀이에서는 몸을 숨길 곳은 따로 없다. 따라서, 술래의 몸을 숨기는 상대방의 가상놀이에 대한 마음의 이론, 즉 몸이 뻗히 눈으로 보이더라도 가상적으로 몸을 숨기고 있다는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은 술래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만이 지속적으로 놀이가 유지될 수 있다(김미숙, 2006). 숨바꼭질 놀이는 본 연구의 전이 기간 동안 자원 영아와 신입 영아간의 수평적 놀이 교류가 가장 역동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일어난 놀이이다.

교구장 반대편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는 신입영아 신신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기 위해 상만은 위로 일어나서 건너편으로 몸을 숙인다. 그러자 신신이 상만에게 다가와서 “야아아”하면서 웃는다. 상만이 다시 숨고, 신신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와서 잠시 후에 다시 상만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야아아” 하면서 웃는다. 다시 원래 위치로 온 후에는 이번에는 상만이가 밑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와서 신신에게 다가가서 “야아아” 하고 웃는다. 이들은 계속 이렇게 공간의 위치와 술래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놀이를 계속하였다(2008, 4, 참여관찰).

숨바꼭질 놀이는 자원 영아와 신입 영아들 간에 가장 교류를 촉진하는 놀이 중의 하나였다. 이는 숨바꼭질에서 술래의 역할을 서로 돌아가며 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에 참여한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할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와 공유’는 파트너십 구축에 핵심적인 개념이다.

아주 어린 영아들도 자신이 참여하고 역할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놀이에 몰입하는 것은 그것이 서로의 심리적 벽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블록을 쌓기와 쌓은 블록을 무너뜨리기

영아들이 블록 탑을 쌓은 후에 무너뜨리는 행동은 관찰 기간 내내 지속되었는데, 이와 같은 반복적인 블록 탑 쌓기와 무너뜨리기 행동은 일종의 놀이가 되었으며, 블록 쌓기와 무너뜨리기의 순환에서 영아들은 신체적, 사회적, 언어적 접촉과 교류를 빈번하게 하게 됨으로써 재원 영아들과 신입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가 촉진되었다. 블록을 흘리는 행동에 대해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의 ‘암묵적 합의’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서로의 의도에 대한 이해는 수차례의 유사 상황에서 얻게 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재원 영아 우식은 작은 블록 4개를 위로 쌓은 후에 그 위에 3개의 세모 블록을 쌓고, 계속 반원형태의 블록을 옆으로 확장하면서 쌓고 있었다. 그러나, 신입 원아 건식은 두 개를 위로 쌓다가, 하나를 들어내고 나머지 서있는 블록 위에 반타원형의 블록을 세우고 그 위에 직사각형 블록을 올리려고 하자 전체 블록이 무너졌다. 옆에서 블록을 쌓던 우식은 완성되자 그 블록을 무너트렸다. 그러자 건식도 자신의 것을 손으로 흘으면서 옆에 무너진 우식은 것들을 함께 흘렸다.

.....중략.....

우식은 다시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리

고는 다시 손으로 흘렸다. 우식이 쌓아놓은 블록 탑을 건식이 또 다시 손으로 흘린다. 그러자, 우식은 소리를 지른다.

우식: 안돼!

건식: 안돼!(도망가면서 우식을 바라다보면서)(2008, 4, 참여관찰)

이 영아들의 블록 쌓기의 경우, 주로 병행 놀이가 일어났다. 블록 쌓기에서 연합놀이나 협력놀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 영아의 블록 쌓기 전략을 파악해야 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의 관찰 기간 동안 영아들의 블록 쌓기 전략은 수평으로 길게 늘어놓거나 수직으로 높게 쌓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으로 높게 쌓는 경우, 동일한 직사각형을 높게 쌓거나 직사각형의 블록위에 반타원형의 블록이나 삼각형의 블록을 쌓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블록을 수평으로 늘어놓는 경우, 직사각형을 일렬로 늘어놓은 후에 반원형의 블록과 삼각형을 추가하여 계속 일렬로 늘어놓았다.

전반적으로 블록 쌓기에서 재원 영아들과 신입 영아들은 두 전략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재원 영아들이 수직 전략을 더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재원 영아들은 주로 직사각형 블록 위에 반타원형과 삼각형의 블록들을 올리며 높이 쌓았고, 신입 영아들은 블록 하나를 바닥에 세우기를 시도하거나 두 개의 블록을 세워서 위로 쌓기를 시도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입 영아들은 수직전략을 시도하는 초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수직 전략을 사용하는 신입 영아들과는 달리 수직 전략

을 수월하게 사용하는 자원영아들은 블록을 위로 쌓을 때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하였다.

우식은 수혜가 같이 협력하여 블록 탑을 쌓고 있었다. 우식이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수혜가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식이 쌓는 방식으로 이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직사각형의 블록을 위로 쌓았다. 이들은 직사각형의 블록을 7개를 쌓고는 그 위에 삼각형, 작은 정사각형, 원형의 블록을 쌓아 올려놓는다. 우식은 수혜와 함께 블록을 다 쌓은 후에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손뼉을 쳤다. 갑자기 건식이가 어디에선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수혜가 우식이 쌓아놓은 블록 탑을 무너트렸다. 우식과 수혜는 아무 말없이 블록 탑을 다시 쌓기 시작하였다. 그 옆에서 건식은 자신의 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블록 쌓기와 무너트리기는 다양한 또래, 다양한 시간대,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계속 일어났었다.(2008, 4, 참여관찰).

재원 영아들의 수직 블록 쌓기 전략이 없는 신입 영아가 재원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블록 쌓기와 무너트리기를 이용하여 일종의 놀이로 이어가는 것은 새로운 놀이의 생성으로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전

이 기간 동안의 재원 영아와 신입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구축, 그리고 그에 따른 적응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한 학급에서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전이 및 적응 기간 2개월을 각각 참여 관찰하였다.

전이 기간 동안 신입 영아들과 재원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구축, 그리고 적응은 재원 영아의 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재원 영아가 거의 없고 신입 영아가 많았던 2007년보다는 재원 영아가 많았던 2008년에는 신입 영아들의 전이가 쉽게 이루어지고 적응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래들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구축 과정을 보면, 재원 영아들의 적극적인 놀이와 그들이 생성한 '자발적 공동체 의식'이 신입 영아들의 적응에 기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집단적 활동과 문화에 신입 영아들이 동질성, 존재감, 소속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전이 기간 동안 신입 영아들은 적응을 하기 위해 능동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전략은 놀이 전략이었다. 신입 영아들의 의사소통 능력, 고도의 놀이 전략의 유·무에 의해 신입 영아들과 재원 영아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구축이 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재원 영아들의 놀이 전략에 조절하여 놀이에 협력하는 경우, 쉽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으며 적응 또한 빠르게 해나갔다. 그러나, 공격성이 높은 영아의 경우, 적응이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또래 관계 또한 쉽게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구축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또래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요인

이 되었다. 비록 또래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영아들은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그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의도를 읽게 되었을 때 또래를 수용하고 함께 놀기 시작하였다. 일단 이 단계가 넘어서면 공격성이 감소하면서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영아들은 전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다양한 놀이를 생성하였는데, 그 놀이는 주로 사회적 관계 구축을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이 기간 동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놀이는 극놀이와 블록 쌓기였는데, 그 이유는 극놀이와 블록 쌓기를 통해 또래들 간에 쉽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블록 쌓기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은 블록 무너트리기 등 다양한 놀이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숨바꼭질 또한 또래들 간에 많이 일어났는데, 그 놀이는 특별한 갈등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영아들이 선호하는 것 같았다.

전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신입 영아들의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구축에서 놀이는 중요한 도구였다. 전이 초기 단계에서는 재원 영아들이 주로 놀이를 주도하였는데 이들과 쉽게 놀이에 참여하는 영아들은 사회적 관계를 빨리 구축하며 적응을 쉽게 하였다. 전반적으로 재원 영아들이 많았던 2008년 관찰에 의하면, 신입 영아들이 재원 영아들과 쉽게 놀이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 구축을 빠르게 하였고 적응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보육기관에서 이미 강력하게 구축된 또래 관계가 나머지 신입 영아들의 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입 영아들의 전이는 이미 사회적 관계가 잘 구축된 영아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응에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신입 영아들은 재원 영아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와 행동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영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영아들의 또래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또래가 쌓은 블록을 무너트리고 도망가면서 또래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또래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처럼 영아들의 공격성을 가장한 친사회적인 행동, 놀이 참여 등은 자아, 즉 사회적 외부로 향해 있는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래들과 사회적 욕구를 맺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 비단 신입 영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재원 영아들도 신입 영아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능동적이었다. 특히 자신과 함께 놀이에 협력해주거나 자신의 놀이 제안에 잘 따르는 신입 영아들과 놀이를 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는 재원 영아와 신입 영아 모두 전이기간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능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영아들의 공격성은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주 어린 영아들의 공격성은 경우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나름대로의 사회적 전략일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3세 유아기부터 자신의 행동으로 또래들의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인과 관계 추론, 즉 사회적 전략이 발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Edwards & Ramsey, 1986), 최근 연구에서는 그 이전의 아주 어린 영아기에도 다양한 행동들 통하여 또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위한 비언어적 수단 등 사회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ckerman & Peterman, 2004).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한 영아들은 또래들과의 놀이를 시도하고자 자기 나름대로 사용하는 행동이 또래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영아들은 그 의도를 이해하고 나면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또래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공격성에서 친사회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소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영아들의 전이 및 적응 과정에 관하여 더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평가 인증 지침서와 현재 보육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적응기간 실제(여성가족부, 2006)를 더 섬세하게 정의하고, 그에 관한 지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평가 인증 지침서(여성가족부, 2006)에서는 적응기간을 1주 동안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이 기간은 영아의 발달적 상태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주 혹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영아들의 전이를 돕기 위해 교사는 집단적 전이와 함께 개별적 전이를 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 전이에서 영아의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 전이는 영아의 발달적 상태나 성향에 따라 시간, 방법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교사들이 영아들의 자발적인 집단 활동이나 행동을 장려해야 하며, 또한 신입 영아와 자원 영아가 자발적으로 함께 새로운 놀이를 생성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미숙 (2008). 영아들의 가상놀이에서의 문화와 교육적 맥락. *인간발달연구*, 15(1), 1-22.
- 김미숙 (2006). 영아학급에서의 일상적(daily) 우정의 형성과정: 함께하기(being together)와 공동체 문화.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53-176.
- 여성가족부 (2006). 보육시설평가인증지침서.
- 한국노동연구원 (2005).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Becker, H. (1999). Problems of inference and proof in participant observation. In A. Bryman

- and R. G. Burgess(Eds.), *Qualitative research* (pp. 55-67). Sage Publication
- Bove, C (2001). Inserimento: A strategy for delicately beginning relationships and ommunications. In L. Gandini & C. P. Edwards(Eds.), *Bambini: The Italian Approach to Infant/toddler care*(pp. 124-145). Teachers College Press.
- Corsaro, W. A. (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Pine Fprge.
- Eckerman, C. O., & Peterman, K. (2004). Peers and Infant Social/communicative development. In Gavin. B. and Alan. F.(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326-350), Blackwell.
- Edwards, C. P., & Ramsey, P. G., (1986). *Promoting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Teachers College Press.
- Galluzzo, D., Matheson, C., Moore, J., & Howes, C. (1990). Social orientation to adults and peers in infant day care. In N. Fox & C. Fein(Eds.), *Infant daycare: Current debate* (pp.183-192).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Gubrium, J. F., & Holstein, J. A. (2000). Analyzing interpretive practice, In D. Lincoln(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487-508). Sage.
- Henley, P. (1999). Film-making and Ethnographic research. In *Qualitative Research* (pp.302-322), Sage Publication.
- Holmberg, M. (1980).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rchange patternsfrom 12 to 24 months. *Child Development*, 51, 448-456.
- Howes, C. (1997). Teacher sensitivity, children's attachment and play with pe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 41-49.
- Howes, C., Philipsen, L., & Hamilton, C. (1993). Constructiong social communication with peers: Domains and sequences. In J.Nadel (Ed.), *Early communication* (pp. 215- 232). London: Loutledge.
- Howes, C. & Tonyan, H. (2003). Peer Relations. In L. Balter and C. S. Tamis-Lemonda (Eds.), *Child Psychology: A Handbook of Contemporary Issue* (pp.143-157). Psychology Press.
- Jacoboson, J. L., & Wille, D. E. (1986). The influences of attachment behavior on developmental changes in peer interaction from toddler to preschool period. *Child Development*, 57, 338-347.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Child care and children's peer interactions at 24 and 36 months, *Child Development*, 72(5), 1478-1500.
- Rock, P. (1999). Participant Observation. In Bryman. A. and Burgess. R. (Eds.). *Qualitative Research, Vol. II.* pp. 3-38. Sage Publication
- Rogoff, B. (2003).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Roogff, B. (1998). Cognition as a collaborative process, In D. Kuhn and R. Siegler(Eds.),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Wiley & Sons, Inc

Volling, B., & Fegans, L. (1995). Infant daycar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fant Behavioral. Development*, 18, 177-188.

1 차원고접수 : 2008. 07. 03.

수정원고접수 : 2008. 09. 12.

최종게재결정 : 2008. 09. 16.

Peer relationships between newly enrolled toddlers and those with one years previous experience at daycare center in transitional periods

Kim, Misuk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oddlers' adjustment in transitional periods, using an observant-participant research methodology. The peer interactions, peer relationships, and adjustments of children were observed and recorded by videotape in March and April, for a period of two years, between 2007 and 2008. The data was interpreted by inferencing themes from similar recurrent events. The site was a daycare center and data was collected 2-3 times a day from 9:30 to 12:00 noon. Toddlers with one years previous experience influenced the adjustments of newly enrolled toddlers. The greater the experience of the former, the better the latter's adjustments was. The newly enrolled toddlers were easily involved in 'the spontaneous community mood' and interacted well with peers. The play also influenced the newly enrolled toddlers' social interactions and adjustment. They created new play strategies and initiated social interaction with toddlers with one years previous experience if they could not collaborate with peers due to the lack of skillful play strategies. The present results imply the necessity of practice methodology focused on peer interactions for toddlers' adjustments in such transitional periods.

Key words : toddlers, daycare center, transition, adjustments, social relationships, social interactions